



Nonkilling Korea: Six Culture Exploration

Glenn D. Paige and Chung-Si Ahn (eds.)*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2012)

정대화 부산대학교 명예교수

I. 머리말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는 2010년 8월 18~19일 “Non-killing Korea: Six Culture Exploration(비살생 한국: 6개국 문화자원 탐색)”을 주제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아시아연구소가 창립된 지 막 1주년이 지난 시점이었다. 이 국제 회의에는 한국을 포함하여 미국, 일본, 러시아, 중국으로부터 20여 명의 인문사회계열 학자들이 참석하여 9편의 논문을 발표하고 진지하게 토론에 임했다. 비록 외부로부터 큰 주목을 받지 못한 작은 회의였지만, 세미나 참석자들은 한국 정치학 연구에서 비살생과 비폭력적 접근법을 제시한 초유의 학계 간 협력이자 시도였다는 평가에 전원 의견을 모았다. 이러한 비살생 평화연구는 장차 한반도의 통일과정에서도 깊이 있게 논의될 가치가 있다는 데에도 참석자 전원이 공감하였다. 회의를 마치면서 참석자들은 발표된 논문들을 수정·보완하여 한 권의 저서로 발전시켜 보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서울대학교출판부는 2012년 2월 *Non-Killing Korea: Six Culture Exploration*이란 제하의 영문저서를 출간하였다. 바로 위에 언급한 국제회의의 결과물이다. 세미나 이후 하와이에 있는 Center for Global Nonviolence의 창

* 집필과정에서 필자와의 수차례에 걸친 이메일 교신과 내용 확인, 윤문 등에 조연과 도움을 준 안청시 교수에게 감사한다.

립 소장인 페이지(Glenn D. Paige) 교수와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로 아시아연구소의 편집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청시(Ahn Chung-Si) 교수가 일 년 반 동안에 걸쳐 수많은 이메일과 전화를 주고받으며 편집 작업을 거쳐 드디어 이 책을 출간하게 된 것이다. 이 책은 두 공동 편저자의 비살생 정치학 정립을 위한 오랜 학문적 교감과, 하와이대학교에서 사제지간으로 지난 40여 년 동안 두텁게 다져온 교분의 흔적이 구석구석에 녹아 있는 의미 있는 저서이다. 특히 페이지 교수의 삶과 학문의 궤적으로 보면, 일생에 걸친 한국사랑과 한국학 증진에 대한 지적 헌신이 곳곳에 묻어나는 저서이기도 하다. 그런 만큼 독자들은 이 책의 행간을 관통하고 있는 동기와 사상에 대한 깊은 이해에서 출발하는 것이 비살생 한반도를 위한 6개국의 문화자원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편자는 위의 국제회의에 시종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두 편저자와의 오랜 학문적인 교분으로 서평에 대한 의뢰를 받았다. 먼저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이 저서에 천명된 연구목적, 원용된 이론적 바탕과 연구 방법 및 그 함의에 대한 몇 가지 시사점들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아울러 이 저서의 각 장에 서술된 주요 내용들을 간략히 정리해 보고자 한다.

II. 연구목적, 이론과 방법에 대하여

이 책은 폭력과 전쟁, 인명살상과 침해한 갈등으로 점철된 한반도에서, 남북한 통합과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남북한과 그 이웃 당사자들이 해묵은 과거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야 함을 강조한다. 시대변화에 따른 새로운 사고의 틀을 가지고 적실성이 떨어지는 기존의 정책 기조를 손질함으로써 새로운 역사적 전환을 기획해야 한다는 선언적 명제 위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이 선언적 명제는 일찍이 톨스토이(Leo N. Tolstoy), 간디(M. Gandhi), 마틴 루터 킹(M. L. King Jr.) 등 수많은 선지자들의 노력과 투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비폭력 평화이론 및 무저항 투쟁운동과 물론 일맥상통한다. 그러나 이 책의 편자들은 여기에서 일반적 비폭력 이론 담론들을 되풀이하는 대신 페이지 교수의 『비살생 지구정치학』(Paige, 2002, 2004; 안청시 편, 2004: 215-244)에서 제안된 개념구조를 동아시아와 한국의 역사

와 현실에 원용하고자 하였다.

이 책의 주제를 이루는 중심 개념은 Nonkilling Korea, 즉 ‘비살생 한국’이다. 연구과제는 – 앞에서 본 것처럼 – ‘비살생 한반도 만들기’, 즉 살생으로부터 벗어나 폭력과 전쟁위험에서 해방된 한국의 미래를 내다보며, 비폭력 평화론(nonviolent peace)에 입각하여 남북한 통합을 모색하는 데 적용 가능한 문화자원들을 찾아 나서자는 제안을 담고 있다. 이 책의 편저자와 각 장의 집필자들은 ‘비살생(Nonkilling)’이란 포괄적인 용어를 – 페이지의 이론과 개념정의의 수용하여 – 비폭력 평화의 개념으로 한정하여 분석한다. 이는 한반도와 남북한 관계라는 특수성과 역사적 맥락을 보다 구체적이고 적실한 분석 단위로 접근하는데 편의성을 갖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한국학 연구에서 이처럼 비폭력과 살생회피 개념 열개(frame of definition)를 준용한다는 차원에서 이 연구는 기존의 한국문제 연구와는 큰 차별성을 띠고 있다. 이 책이 바탕으로 하는 이론기조가 분단, 특히 한국전쟁 이후 정치군사, 경제이적, 이념갈등이나 안보문제 등에 집중된 기존 연구들의 이론기조와 대조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책은 이러한 지적 편중현상에 주목하며 비살생정치학의 과제와 소임이라는 연구목표와 방법론에 충실하려는 의도를 분명히 보여준다. 이는 다시 주목 받고 있는 문화해석학적 접근의 부활과 가치중립적 경험과학으로부터 가치 지향적 전향(‘비폭력’으로의 가치관 변화) 또는 규범적 개종을 통한 ‘재분석’과 이를 통해서 ‘새로운(비폭력적) 규범 찾기’ 및 ‘대안적 행동 탐색’으로 나아가는 분석방법을 지향하고 있는 것으로, 독자들은 이 점을 유의해서 이 책의 독해에 임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페이지는 「가치와 과학: 미국의 한국참전결정 재론」에서 폭력을 거부하고 비폭력가치로의 전향을 선언한 이후에 그의 『미국의 한국참전결정(The Korean Decision)』(1968)에 대한 분석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부연한다(Paige, 1993; 안청시·정윤재 역, 1999: 79-80).

우리가 정치적 폭력을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것처럼, 평자 첨가) 받아들이고 정당화하며, 그럼으로써 폭력에 대한 대안들을 발굴해 내지 못하게 된다면, 정치학은 우리에게 이로운 것이 거의 없게 될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미국의 한국참전결정』은 이

같은 정치학의 임무에 대한 하나의 공헌으로 재분석될 필요가 있으며, 그것이 앞으로 계속 일어날 폭력 사태와 아마도 그것이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악화될 것에 대한 하나의 과학적 변명으로 남아 있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미국의 한국참전결정은 원래 “한국전쟁에서 죽은 모두에게, 그리고 정치적 결정을 내리고 공부하는 모든 사람에게” 헌정되었다. 이제 여기에 한마디 더 붙이고자 한다. 이 책을 “비폭력적인 미래의 인류에게 바치노라.”

이 책은 총 7장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크게 네 부분들로 나뉘어져 배열되어 있다. 1부는 양성철(고려대학교 석좌교수, 전 주미한국대사 역임)의 머리말(foreword)과, 두 편저자의 서문(preface) 및 선임편자 페이지(G.D. Paige)의 서장(introduction)으로 구성되어 있다. 2부는 강장식(국민대학교 교수)과 페이지가 각각 한국과 북한의 경우를 분석한 두 사례 연구로 묶여져 있다. 3부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4개국의 비폭력 문화유산 및 비살생 자원을 탐색한 연구들이 4개의 장들로 묶여져 있다. 그리고 4부에 준하는 7장(결론, conclusion)에서는 페이지와 안청시 두 편저자가 이 책의 주요 발견과 그 함의 및 중요성에 대한 요지로 마무리했다.

III. 내용 요지

1. 서장

제1장의 저자 페이지 교수는 세계의 4대 강국들 - 일본, 미국, 러시아와 중국 - 이 지난 한 세기에 걸쳐 세계제패를 둘러싼 전쟁과 살생을 거듭하면서 한반도에 엄청난 재난과 살생의 기록을 남겼음을 지적한다. 그 결과 한반도의 남북한 7천5백만 주민들은 식민화와 분단, 동족 간 전쟁 및 유례없는 살생의 과거사와 함께, 오늘날까지도 끝나지 않은 전쟁 위협과 일촉즉발의 무력충돌 위협과 대량파괴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이다. 이어서 페이지는 이 책이 정치, 경제, 군사안보 측면에서부터의 평화뿐만 아니라, 보다 적극적이고, 가치지향적이며, 비살생(nonkilling) 지구 정치개념(global political science)을 채용하며,

한반도와 4대 강국을 포함한 6개국에 존재하는 비살생 문화요소를 탐구하는 데서 출발함을 명시한다. ‘살생정치로부터 비살생 정치(문화)로의 전환’이란 기치(No More Killing)를 내걸고 그는 ‘비살생 한국’, 즉 살생이 없는 한반도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1. 한국인들이 서로를 죽이지 않는다.
2. 외국인들이 한국인들을 죽이지 않는다.
3. 한국인들이 외국인들을 죽이지 않는다.
4. 비살생 한반도를 통해서 한국은 살생 없는 남북한 통합을 이룩하고, (비폭력)세계 평화 성취달성에 이바지 한다. 여기에 더하여 살생없는 사회는,
5. 살생용 무기가 없는 사회와 살생을 정당화하는 이념이 없는 사회를 의미한다.

이어서 페이지는 남북한을 포함한 4대 강국들이 각각 자국의 역사와 세계사에 미친 폭력과 살생의 기록들을 일별한다. 이 부분(20-27쪽)은 독자들로 하여금 - 간디가 말한 것처럼 - 폭력의 현실을 바로 볼 줄 알아야 비폭력 평화에로의 길을 찾아 나설 수 있다는 사실을 상기해 주는 것처럼 보인다.

다음으로 페이지는 ‘과거의 살생 역사와 그 유산을 생각할 때, 한국인들과 미국인, 일본인들, 러시아인들, 중국인들이 미래에 더 이상 살생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는 근거는 어디에 있으며 그러한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그는 이에 대한 대답을 우선 고래로부터 대다수 사람들이 자기 일생에서 한 번도 살인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그리고 여섯 나라 모두에서 살생보다 ‘비살생 문화가 지배’한다는 점을 들고 있다. 만약 인간이 본성적으로 살인을 일삼아 왔다면 인간은 지구상에서 이미 오래전에 멸망하고 말았을 것이라고 말한다. 비살생 사회에 대한 자신감은 모든 종교가 한결같이 설파해 온 교리들, 비살생적인 전통과 신념, 비살생 철학의 신조, 비살생 과학의 진보, 사형이나 군대를 폐지하는 공공정책들, 비살생에 헌신하는 각종 공·사의 조직과 기구들, 그리고 수많은 평화운동가들의 헌신으로부터도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6개국의 문화 자산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발하고, 종합하여 널리 공유한다면 비살생 한반도가 가능할 것이며, 아울러 지구적 비살생 평화를 달성하

는 일도 가능하다는 것이 저자의 주장이다.

2. 남북한의 비살생 문화자원 탐색

1) 남한의 경우

국민대학교의 강장석 교수는 한국인의 비폭력적 문화유산을, 첫째로 그들의 정신세계로부터, 다음으로는 실제적 역사적 경험에서 찾는다. 그리고 이러한 문화유산들이 한국인들의 비폭력적 문제해결에 기여해 왔으며, 앞으로도 비폭력 사회로의 전환에 이바지하게 될 것으로 내다본다. 그는 특히 다음과 같은 정신 자산과 역사적 사례들이 비폭력, 무저항 투쟁운동 및 비살생 사회를 위한 한국인의 주요 자산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

1.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정신: 한국인들의 비살생문화가 고조선의 단군 이래 강조된 홍익인간 정신, 즉 인류를 이롭게 하는 정신에서 유래한다.
2. 불교와 다른 종교들의 영향: 한국인들의 비살생문화의 근거를 불교와 더불어 공존하는 다양한 종교들 속에서 찾는다. 모든 종교들이 비살생을 존중하고 평화를 사랑하며, 화해와 협력, 관용과 용서의 상생적 가치와 비폭력문화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3. 3·1 독립운동 정신: 1919년에 일어난 3·1 독립운동 투쟁과 독립선언서에 나타난 한국인의 비폭력 평화 정신을 중요한 비살생 문화자산의 일부로 강조한다.

이 외에도 강 교수는 민주화를 비롯하여 최근에 일어난 몇몇 비폭력 저항 운동 사례들이, 무력과 폭력을 대체하는 비폭력 한국사회 건설의 문화자원으로 활용될 것으로 내다본다. 이 속에는 불교의 삼보일배(三歩一拜) 정신과 운동, 비폭력 촛불시위운동 등이 소개되고 있다.

2) 북한의 경우

이 부분은 북한을 대표하는 연구자가 마땅치 않아 북한을 여러 차례 방문한 페이지 교수가 방북 경험에서 관찰한 사실들에 입각해서 집필하였다. 여기에는 한때 ‘북한의 적군’으로서의 그가 발견한 놀라운 일들에 대해 상술하고 있다. 예

를 들면, 그는 북한에서 황장엽 교수와 첫 대면한 자리에서 “비살생 사회는 가능한가?” 하고 물었다. 이 즉문에 대하여 황장엽은 일각의 주저함도 없이 즉시, “그것은 전적으로 가능하다”고 답하였다고 썼다. 이때 페이지는 큰 충격을 받고 놀랐다고 한다. 페이지의 진술에 의하면 황장엽은 이 질문에 대하여 그가 만난 학자들 중에서 처음이자 유일하게 “Yes”라고 답한 사람이다.

또 그는 황장엽에게 “정치를 어떻게 정의하시나요?”라고 물었다. 이에 황장엽은 “정치는 사회구성원의 이해관계를 사랑과 평등으로 조화시키는 것이지요”라고 대답하였다. 정치를 정의하는데 ‘사랑’을 내세워 정의하는 것 역시 페이지에 의하면, 서양의 전통 - 즉 그리스와 로마시대로부터 지금까지 - 속에서 만나지 못했으며, 황장엽 교수가 처음이었다고 증언한다.

이어서 페이지는 1987년 평양에서 역사학자 박시형을 다시 만나 “한민족의 전통에서 비폭력의 근원은 어디서 발견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박 교수는 그 근원이 “단군신화와 홍익인간 정신”이라고 말하였다. 이것은 서울에서 그가 함석헌翁을 면담했을 때 들은 대답과 정확하게 일치하였다. 또한 페이지는 평양에서도 서울에서도 마찬가지로 심오한 한민족의 비폭력주의 문화의 정수를 발견할 수 있었다고 회고한다. 예컨대, 그는 북한에도 학문을 숭상하고 어린이들을 사랑하는 문화, 등산을 좋아하는 문화, 노래를 사랑하는 민족 문화 등을 확인하였음을 부연했다.

그 외에도 페이지의 관찰에서 확인된 비살생 한국의 주요 사례들은 다음과 같다:

1. 1972년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의 평양 방문 이후 맺은 7·4 남북한 공동성명
2. 2000년의 김대중-김정일 남북정상회담과 6·15 공동성명
3. 2007년의 노무현-김정일의 정상회담과 10·4 공동선언
4. 1980년 남북한 군대를 각각 10~15만 정도로 축소하자는 김일성의 제안 등

3. 4대국의 비살생 문화자원 탐색 요지

3~6장에는 한반도 주변 4개국의 살생 관련 기록 및 비살생 문화자원들을 탐

구한 사례연구들이 수록되어 있다. 편저자들은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전문가들을 선별하여 이들에게 - 한반도와 관련이 없을지라도 - 각 나라의 역사와 문화 속에서 발견되는 비살생 사상, 문화, 전통에 대하여 “귀국의 문화에서 비살생 요소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라는 개방된 질문을 주고, 몇 달 후에 서울에서 발표 및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세미나의 결과를 집필자들이 각각 다시 수정하고 보완하여 보내왔다. 4개국 학자들의 견해와 제안 내용들은 아래와 같다.

1) 미국의 사례

미국의 사례는 메타 비폭력 센터(Metta Center for Nonviolence)의 내글러(Michael N. Nagler) 교수와 반 후크(Stephanie N. Van Hook)가 공동집필했다. 필자들은 미국문화가 비살생 전통과 실제 면에서 매우 취약한 것으로 보는 관점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미국이 비살생 평화국으로 다시 태어나는 일은 비록 쉽지 않은 일이긴 하나 그 가능성은 분명히 열려 있다는 결론으로 나아간다. 민권운동가 킹 목사는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폭력을 생산하는 국가”라고 말한 바 있다. 미국의 감옥들은 죄수들이 넘쳐나는 곳이며, 미국 외교는 폭력과 살생에 의존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미국의 전쟁체제(War system)를 종식하기 위해 일찍이 반전 퀘이커교도 운동을 비롯해서 1, 2차 세계대전에서의 징집거부 운동, 여성운동에서의 낙태반대, 반전, 반핵운동, 1968년에 시작한 케네디 대통령의 평화군 운동, 미민권운동기구(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에 의한 운동 등 다수 운동체들이 나섰다. 그러나 소수 열성주의자들의 끈질긴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국 안의 비폭력운동은 전쟁 문화를 바꾸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본다.

저자들은 미국사회가 전쟁을 수용하는 가치로부터 전쟁체제를 불법화시키는 가치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미국의 물질적 필요는 실로 외국인들의 피로써 충당되어 왔다는 것이 과언이 아닐 정도로 폭력과 살생이 넘쳐나며, “전쟁체제를 폐기해야 한다”는 구호에도 불구하고 그 방법을 찾는 일은 지난하다고 본다. 그러나 저자들은 ‘비살생 미국이 가능한가’에 대하여 ‘가능하다’는 대답을 제시한다. 비폭력은 인간이 부여받은 진화의 원리 속에 내재하고 있는 본원적 가능성의 일부요, 간디의 말처럼 평화의 가능성을 부정하는 것은 인간이 본성에 타고난 신성(godliness)을 부인하는 것과 같다고 본다. 3억 명의 미국시민들

에게는 3억 개의 비살생 가능성의 문이 열려 있다고 필자들은 말한다. 많은 미국인들이 살생문화를 청산하는 일이나 비살생 정치를 성취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본다. 그러나 필자들은 말한다. 간디의 가르침과 킹 목사의 기치하에 전 미국사회가 극적으로 비폭력적 민권회복 정치를 이루어내지 않았는가(91-92쪽 참조). 그 외에도 저자는 미국사회에 일어난 비폭력의 역사를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 부연하고 있다(93-101쪽 참조).

2) 중국의 사례

중국의 사례는 베이징대학의 정치학과 탕 다후아(Tang Dahua) 교수가 집필하였다. 탕 교수는 먼저 중국은 역사상 고래로부터 오랜 기간 전쟁, 살상, 빈곤과 저발전, 불평등으로 얼룩진 폭력과 증오의 유산을 안고 오늘의 나라를 세우는데 이르렀음을 지적한다. 현대 중국은 대외적으로 평화로운 나라, 살상하지 않는 나라, 살생무기를 먼저 사용하지 않는 나라를 꿈꾼다고 공언한다. 과학기술의 발전을 포함하여 이데올로기와 문화 면에서도 평화와 비살생 가치를 수호하는 중국을 만들겠다고 대내외에 주장해 왔다. 그러나 페이지가 규정한 비살생 중국과는 달리, “현대 중국은 평화와 비살생과는 거리가 멀다”. 수많은 살상이 합법적, 비합법적으로 자행되고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매년 사형에 처해진다. 통계에 잡히지 않지만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폭력, 고문, 타살이 자행되는가 하면, 교통사고, 탄광 폭발, 자연재해 등으로 죽은 사람들의 실상도 중국에서는 비밀사항으로 분류되어 공개되지 않는 것이 상례다. 세계 최다수의 인민해방군대가 상비로 유지되고, 중국군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만도 약 240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중국의 인명 살생용 무력 규모와 파괴력은 날로 증가하는 추세다(114-116쪽 참조).

급속한 경제발전에 부수되는 구조조정과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로 말미암아 현재 중국은 국가전략 대전환의 도전에 당면하고 있으며, 사회·문화적 측면에서도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중국 정부가 공언하는 바처럼 평화 이념에 부합하는 비살생 중국 만들기엔 이바지할 수 있는 문화자원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에 대한 탕 교수의 분석은 다음과 같다.

평화와 비살생 사상 및 그 철학적 신조, 동시에 이를 뒷받침하는 중국인들의

문화 자원은,

첫째, 유구한 중국역사의 ‘연속성’과 ‘자급자족하는 중국문화’의 특성에서 찾을 수 있다(118-120쪽 참조).

둘째, 중국인들의 세속주의와 실용주의.

셋째, 평화적이고 비살생적인 중국을 위한 정치적 기반과 조건들 중에는 오랜 농업 중심의 정치사회 구조 속에서 습득된 ‘조화’의 강조 및 가족과 공동체 사회를 위한 ‘사랑’과 ‘자기절제(self-constraints)’의 가치가 개인들의 정치생활에서도 큰 영향을 미친다.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의 경로가 지속되는 가운데서 예상되는 정치 구조조정 의 압력과, 통치 엘리트와 공산당 거버넌스 사이에 조화로운 리더십의 조우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비폭력, 비살생 중국을 위한 위의 문화자원들은 평화와 비살생 중국의 실현 가능성을 한층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필자는 ‘조심스럽게’¹ 낙관론을 피력한다. 이와 관련하여 탕 교수는 다음과 같은 최근의 낙관적 증좌들도 부연 소개한다.

- 중국 정부는 2004년과 2005년에 “조화로운 사회와 세상”이라는 슬로건을 내 걸고 전통문화와 현대적 가치 간의 새로운 부합 관계 모색을 선포하였다.
- 중국은 서양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과거와는 달리, 자신들의 가치관을 정립하여 밀고 나갈 수 있는 스스로의 의지와 능력을 겸비하고 있다.
- 중국은 방어적 목적의 국방정책과 핵정책을 고수할 것이다.
- 중국은 근자에 수많은 국제협약과 인권관련 조례에 가입하여, 평화와 비살생 세계 성취에 접근하는 정책으로 나아가고 있다.
- 홍콩에 대한 특별자치행정구를 허가했다.
- 대만과의 평화공존을 모색하고 있다.

¹ 이 ‘조심스럽게’란 말에 대해 탕 교수는 “이 요소들이 평화와 비살생 중국을 위한 가능성을 제공해 주는 증거들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성취되기까지는 시간과 기회, 그리고 정부당국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부연한다.

3) 일본의 사례

저자인 오카모토(Mitsuo and Tamayo Okamoto) 부부는 과거 일본 국민들의 교육 전통과 가치관 또는 국가의 정책결정 전반을 훑어 보아도 내세울 만한 비폭력 전통이 부재했고, 비살생 문제해결의 모범사례를 발견할 수 없다고 썼다. 일본은 일찍이 한국을 약탈하고 식민화 시켰으며, 아시아 이웃나라들을 침탈하고, 마침내 제2차 세계대전이란 전대미문의 파괴와 살상을 초래한 원인 제공 국가다. 일찍이 일본은 불교의 비살생 교리를 받아들여 적어도 민중 생활 속에는 불교적 문화와 평화 사상이 널리 파급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전통이 지배계층의 전쟁행위를 제어하거나 갈등의 평화적 해결을 도모하도록 하기에는 근대 일본의 엘리트 지배와 무력적 대외정책 기초가 너무 공고했다는 것이다. 오늘날 일본 사회에는 선진국들 중 예외적으로 사형제도도 온존해 있다. 국가안보와 방위 정책도 전쟁, 살상, 파괴적 무기체제의 축소는 고사하고 보수-우편향적 정당정치에 장악되어 있다. 이는 21세기적 요구에 부응하여 국가전략을 획기적으로 전환하는데 방해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면 일본이 갈 길은 어딘가? 필자들은 일본이 과거의 역사를 교훈삼아 ‘비살생 경로(nonkillong path)’로 전환하도록 해야 하며, 이 길을 통해서 일본이 아시아와 세계를 비살생 지구 평화의 길로 이끌어 나아가는 지도국가로 일어설 수 있다고 주장한다(136쪽). 여기서 필자들은 오늘의 일본이 채택해야 할 가장 합리적인 경로는 현재의 평화헌법에 표명된 원칙을 구현하는 것이라고 결론 내린다. 이어서 일본인의 고대 신화와 그 정신문화 속에서 나타난 평화사랑 정신을 소개하며, 일본 정신사의 여러 고비에서 전쟁과 살상을 반대하며 비살생과 평화를 위해 투쟁하고 헌신한 용기있는 무사들, 반전과 살생금지를 호소하였던 시가(詩歌)들, 사형제도 폐지 운동가들의 사례를 소개한다. 특히 1945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의 참상에 자극되어 평화운동가로 나선 모리다끼 이찌로(Moritaki Ichiro)와 일본의 평화헌법 9조의 전쟁 포기를 옹호하고, 비폭력 평화운동에 앞장서서 활동했던 시인 쿠리하라 사다꼬(Kurihara Sadako)와 오다 마코토(Oda Makoto) 등의 행적이 소개되고 있다.

4) 러시아의 사례

Tatiana Yakuskina

러시아의 문학자 야쿠쉬키나(Tatiana Yakushkina)는 러시아의 문예 유산과 작품들 속에 소개되고 있는 비폭력과 비살생 개념에 대하여 탐색하고 있다. 그녀의 글에 의하면 톨스토이(Tolstoy)와 같은 평화사상이 없지 않았으나,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이 붕괴될 때까지는 러시아의 문학이나 문예작품들 속에 비살생, 비폭력이란 개념은 거의 다뤄지지 않았다고 한다. 다른 여러 나라와 마찬가지로 러시아 역시 전쟁, 살상, 혁명은 빈번하게 일어났으며, 오랫동안 폭력이란 개념은 사람들에게 일상화된 사고체계로 익숙해져 있었다. 전쟁상태에 익숙한 사람들과 지배자들에게는 무력적 능력과 용기, 적을 무찌르는 능력 등이 중요한 덕목으로 추앙되었다. 따라서 러시아인의 의식 속에는 적에 대한 굴욕이나 악에 대한 무저항은 용기와 결단력의 부재요, 악덕으로 취급되었다. 기독교적 영향을 받은 러시아에서 영웅과 위인은 용기로 무장하고, 두려움에 굴함이 없이 조국을 수호하고, 신의 뜻과 진리의 편에서 희생을 감수하는 것을 이상으로 삼았다.

11~12세기경 러시아가 기독교를 국교로 삼으면서 살생을 금하는 기독교 윤리가 러시아 사회에 서서히 소개되기 시작했으며, 살생을 도덕적으로 비난하는 움직임들이 싹트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러나 13세기 중반 몽골의 침략으로 인한 살상이 자행되고, 이에 대한 러시아의 보복적 전쟁과 살생이 광범하게 확산되면서, 그 후 피터 대제(Peter the Great)의 전제정치가 지속된 18세기 초까지 러시아의 문화는 악을 구제하고 조국을 수호하기 위한 폭력사용과 전쟁을 관대히 보아주고, 조국 수호를 위해 엄격한 전제적 통치와 살상(불가피한 수단으로) 허용하는 전체주의 체제를 강화했다.

18세기를 지나 19세기로 접어들어 유럽의 개명주의 문명과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정치 신조가 러시아 지성사회에 널리 전파되면서, 노예제 폐지론과 개인 권과 국가 권력 간의 관계, 시민 자유와 국가 의무에 대한 개명 사조가 함께 도입되었다. 이 시기에 푸쉬킨(1799-1837), 톨스토이(1828-1910) 등의 대문호들이 등장하였고, 변화하는 시대정신과 지성사에 대한 일대 전환기를 거치면서 국가와 권력기구는 폭압적 정치권력의 앞잡이라는 체제 비판론 사상이 러시아 지성 사회에 급속히 확산되었다. 특히 톨스토이의 신랄한 국가비판론은 ‘국가란 개인의

전체주의적 복종을 강요하는 폭압장치요 비밀 음모(clandestine plot) 도구에 불과하다’는 명제와 함께(181-183쪽 참조) 이전까지의 러시아 문화에 대한 종결을 촉구하는 최종 심판에 가까웠다. 여기에 더해 톨스토이는 당시의 러시아에 팽배했던 소위 혁명주의적 폭력에 대해서도 통렬한 저주를 퍼부었다. 이로써 하느님의 말씀인 “살인하지 말라!”는 신조는 전쟁과 폭력사용에 대한 러시아인들의 지성사와 문학, 예술활동 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등장했고, 반전, 비폭력, 비살생 운동의 동력으로 각인되었다. 이어서 필자는 위와 같은 범주에 속하는 근현대 러시아의 유명 저술가와 화가, 신학자들(예컨대, Vsevolod Garshin, Vasily Vereschagin, Maximilian Voloshin, Nikolaj Rerikh 등)의 작품과 반전 비살생 운동의 사례들을 소개한다.

William Smirnov

러시아 과학 아카데미의 정치학 교수인 스미르노프(William V. Smirnov)는 러시아 문화에서의 비폭력과 비살생의 원천은 기독교리에 바탕을 두고 시작되었으나, 이 종교적 영향은 약 300년 이상에 걸친 몽고의 지배로 말미암아 오래동안 차단되었다는데 동의한다. 그리고 러시아 문화사에서 보편가치로서의 비살생 가치가 이입되는 데는 톨스토이의 저작들(『전쟁과 평화』, 『하나님의 왕국은 당신 안에 있다』 등)에 크게 힘입었다고 한다. 여기에 더해 스미르노프는 같은 맥락에서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던 도스토옙스키의 『카라마조프 형제』, 솔제니친의 『수용소군도(The Gulag Archipelago)』도 추가했다. 그리고 러시아 출신으로 하버드대학교 교수를 지낸 사회학자 소로킨(Pitirim A. Sorokin)도 비폭력 비살생 문화 이론에 기여한 학자로 거명한다. 노벨물리학상을 수상한 사하로프(Andrei Sakharov) 박사도 이 안에 포함된다. 사하로프는 러시아의 원자탄을 만든 사람 중의 하나로 핵전쟁이 일어나면 수천만 명의 인명이 희생될 것을 경고하고, 소로킨과 더불어 ‘사랑과 인류의 도덕성 회복을 촉구하며, 러시아가 새로운 지구를 창조하는 대열에 합류’할 것과 ‘전쟁의 부도덕성을 전파하여 시대착오적 가치전향’을 촉구한 비살생 문화 전수자의 주요인물로 소개된다.

1979년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제11차 세계정치학회 총회에서 페이지 교수가 소련정치학과 사회과학계 학자들에게 비폭력 비살생 지구정치학의 개념을 소

개하면서부터 서방권 정치학자들과 소련 학자들 간에 이 문제에 대한 학문적 대화와 교류가 시작되었다. 특히 그의 저서 『비살생 지구정치학(Nonkilling Global Political Science)』(2002)이 최근 러시아어로 번역되어 러시아 학계에 그의 비살생 정치론이 소개된 일도 러시아권에서 이 방면에 대한 문화자원을 확산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

IV. 맺는 말

이 책의 연구과정에 참여한 필자들은 각기 그들 나라의 역사와 전통, 종교와 문화, 학문 전반에 걸쳐 비살생 문화자원을 찾아내고 이를 종합해 냈다. 나라마다 다소 차이가 있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6개국의 학자 모두가 그 나라의 문화 속에 비살생 요소가 온존하고 있다는데 동의함은 물론 이들 문화자산을 더 키우고 확산시켜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비살생 미래사회의 건설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비살생 문화 증진과 가치 형성에 보다 창의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학제적 연구를 확산시키고, 다문화적 시각과 다차원적 연구개발의 증진과 아울러, 여성의 역할 증대를 통해 남녀평등으로 ‘문명의 두 날개’를 펼칠 수 있는 사회적 컨센서스를 도출해 가야 할 것이다.

이 책이 갖는 중요성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기대와 희망으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하나는 비살생과 비폭력 접근법을 적용한 선도적 학제 간 연구가 장차 한국 내지는 세계에서 비살생 지구정치학 연구를 주요과제로 부각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아직도 남북이 갈라진 채 군사적 긴장상태에 놓여 있는 한반도와 그 주변국들이 비살생 문화자원을 탐색하고 그 가능성을 이끌어낸 것은, 장차 한반도의 긴장완화는 물론 평화적인 통일 한국을 건설하는데도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가져다 주었다는 것이다. 앞으로 ‘비살생 한국’이라는 연구주제에 더욱 천착하며 학제 간 연구 및 지역 간, 국가 간 연구로 확산되는 지속적인 후속연구를 기대하는 바이다.

투고일: 2012년 6월 13일 | 게재확정일: 2012년 6월 22일

참고문헌

- 안청시 편. 2004. 『비살생정치학과 지구평화운동』. 서울: 집문당.
- Paige, Glenn. D. 1993. *To Nonviolent Political Science: From Seasons of Violence*.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안청시·정윤재 역. 1999. 『비폭력과 한국정치』. 집문당).
- _____. 2002. *Nonkilling Global Political Science*. Philadelphia: Xlibris Corp.
- Paige, Glenn. D. 저. 정대화 역. 2004. “비살생 한국: 한반도에서의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제언.” 안청시(2004), 215-244.

